

Healing I.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1. 아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얼마전 판문점 JSA를 통해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병사에 대한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다. 귀순하는 과정에서 폐 복부에 총알을 무려 6-7발이나 맞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다 죽어가는 귀순병사를 외상외과의 권위자로 알려진 '이국종 교수' 라는 분을 통해 급하게 수술이 되었고, 결국 다시 살아났다는 점이다. 이국종 교수와 같은 의료진을 만나지 않았다면 귀순병사의 생명은 그 순간으로 끝이 났을 것이다. 다 죽어가는 환자 앞에 선 이교수에게 '이념, 사상, 정치적 상황, 국제정세 등' 어느 것도 환자를 살리는 것 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의사의 오직 관심은 환자에게 있다. 환자를 살리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의사에게 중요한 일은 없다. 아픈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의사인 것처럼 이번 '힐링' 시리즈를 통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그 분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이번 시리즈 설교의 핵심이다.

2. 빗겨감, 틀어짐

(1)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뒤엉킴의 문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형상'이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영혼육'이 온전한 존재를 말한다. 문제가 없는 존재이다. 즉, 걱정과 근심, 불안함, 두려움, 스트레스 등이 없는 존재이다. 온전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바로 그 이유이다. 그런 인간에게 생겨난 첫 비극이 '선악과' 사건을 통한 죄의 유입이다. '죄'의 정의는 무엇인가? '과녁을 빗겨난 상태'를 말한다. 비뚤어진 상태이다. 비정상적이고 틀어진 상태이다. 온전한 존재인 인간이 틀어진 존재, 비정상적 존재가 되었다. 결국 그 작은 틀어짐과 빗겨감의 결과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아름답게 정렬되었던 모든 것이 뒤엎겨 버렸다. 시간이 갈수록 뒤엉킴의 상태가 심각해져 간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뒤엉킴이 없이 잘 가면 괜찮는데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다. 예기치 못한 뒤엉킴의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이 바로 고난이다. 고난과 고통은 무엇인가 뒤엎겨 있다는 것이다.

(2) 현실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일의 중요성

문제는 고통으로 오는 뒤엉킴을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괜찮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은 자신이 더 이상 풀어낼 수 없는 뒤엉킴으로 점철되어 있는 상태였다. 자기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아버지를 찾는다. 아버지를 찾게 된 순간이 언제인가? 자기자신이 너무나 처참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다.

[누가복음 15:16-19]

16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17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19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에게 배고픔은 현실이었다. 너무나 배고픈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16절). 성경을 보니 17절에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 라고 탕자의 상태를 기록한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무슨 말인가? 드디어 자기자신의 현실을 본 것이다. 너무나 배가 고프는데,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그 순간이 바로 제정신이 든 순간이다.

그전까지 탕자는 자신의 현실이 어떤지 감이 없었던 것이다. 왜 자신이 고통을 받는지, 왜 고달픈지, 왜 배고픈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현실을 직시하는 '제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정신이 든 순간 탕자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18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를 찾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할 마음을 갖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원래 아버지의 온전한 아들이었으나, 이제는 19절의 고백처럼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자신을 본 것이다.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자신을 여겨 달라는 탕자의 고백을 통해, 그가 얼마나 분명하게 현실을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3) 치유는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일어난다.

탕자는 자신이 처한 배고픔이라는 현실의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알게된다. 그 이유는 그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일이었음을 고백한다.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이 뒤엎겨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놀라운 고백이다. 탕자는 자신의 고통받는 처지를 어떤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는다. 그가 깨닫는 것은 "아~ 내가 고통받고 있는 아픈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 뿐이다. 그 안에 어떤 억울함도 없다. "아~ 나는 고통받고 있는 아들의 자격이 박탈된 품꾼의 하나이구나" 라는 사실 뿐이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상태이다.

모든 고통의 문제를 외부가 아닌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정말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내 배고픔의 문제(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 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 배고픔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버지' 말고 없구나." 라고 진짜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4) 고통의 현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이다. 내가 겪고있는 상처와 아픔의 문제는 모호한 고통이 아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이다. 남이 내 아픔을 알지 못한다. 남이 내 처지를 알지 못한다. 즉, 어떤 누구도 나의 처지를 이해하며 온전한 답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오늘 내가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은 지극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다. 이 순간을 받아들일 때 '제정신'이 들게된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실제 해결자인 아버지를 찾게된다. 마찬가지로이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사'의 존재가 필요하겠는가? 그 사람은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남이 아닌 자신이 받아들이기 전까지 절대 의사를 찾지 않을 것이다.

(5) 인류의 고통 - 아버지를 떠남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깨어진 그 순간부터 '인간'은 아프기 시작했다. 죄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 인간의 '영혼육' 모든 것을 부셔버리기 시작했다. 심각하게 뒤틀리고 뒤엎킨 인간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자신이 아픈지를 모른다. 고통은 있는데 이 고통의 실체를 모른다. 너무나 슬프고 두려운데 그 원인을 모른다. 너무나 불안하고 아픈데 그 원인을 모른다. 심지어는 자기가 아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의사를 찾지 않는다. 주위에 다 아프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2. '하나님의 처방과 치유'

(1) 율법

[갈라디아서 3:24]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죄’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병명조차 알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진단과 처방전’을 주셨다. ‘죄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지만 ‘죄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간을 위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죄’가 무엇인지 율법을 주셨다. 율법은 ‘하라, 하지마라’, ‘의와 죄’의 개념이 명확하다. 율법의 목적은 ‘의로움’에 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로운 자이고 율법을 어기는 자는 불의한 자이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므로 자신이 아픈 환자가 아님을 증명한다. 스스로 처방한 자신의 처방전을 들고, 나는 깨끗하고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다른 온전한 자임을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처방전을 통해서 거짓 처방전임을 알게 되었다. 겉은 온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것 같았으나 그들의 속은 무덤이었고 병들어 있었다. (행위로는 간음하지 않았지만, 행위로는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했다)

율법이라는 마약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자기의’라는 마취제로 마취한 것이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바울처럼, 그 내면이 엄청 괴로우면서도 의사를 찾지 않는 것이다.

(2) 예수님이 오신 이유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인간들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은 너무나 직설적이고 분명했다. *‘너희 모두가 아프단다. 그래서 힘이 든 것이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질병의 무게가 너희를 누르고 있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신 것이다. 그 분은 확실한 처방전을 들고 오셨다. 그 처방전이 바로 이사야 53장이다.

(3) 이사야 53장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에 있다. ‘분리 때문에 정신적, 육신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전가해서 ‘제물’을 대신 죽임으로 그들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다. 율법에 기록된 죄사함의 방법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율법에 기록된 죄사함의 제사가 계속 그들의 삶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된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이다. 그 곳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양은 처참하다. 찢리고, 상하고, 징벌을 받는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고, 멸시를 받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리는 알고있다. 그 분이 예수그리스도 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숨처럼 신봉하여 믿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금기장’으로 본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 모든 율법을 받아들이나 이사야 53장을 지금까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아직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즉,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이 ‘환자’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해결이 없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스라엘의 오늘의 현실 아닌가?

(4)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치료’와 ‘회복’에 대한 확신

[히브리서 7:27]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10, 14]

10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14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소개한다. 모든 율법의 요구대로, 그 분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영혼 육의 고통의 문제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죄 있는 인간이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온전하겠는가? 그래서 인간은 매년 제사를 드린다. 그러나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이 제물로 드린 제사는 다르다.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제물, 즉 율법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제물로 드리지셨기 때문이다. 이사야 53장은 이 완벽한 '제물'에 관한 것이다. 율법을 알고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은 그래서 불편한 장이다. 그들의 제사의 이해 개념안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피한다. 이것이 바로 '죄의 완고함'이다.

(5) 치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신이 될 때 일어난다. 이사야 53장에 대한 확신!

[이사야 53:4-6]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대로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셨다. 그 이유는 영혼육의 고통의 원인인 인간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의 완성이 되셨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이미 입었다고 예언하고 있다. 또한 그 예언은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만 믿고 확신하면 치유를 얻을 수 있다. 감정을 믿지말고, 진리되신 말씀을 붙잡으라. 오늘 내 인생에 있는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하라. 그러면 그와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은 많은 무리가 치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치유를 얻을 수 있다. 기억하라. 예수님은 단 한명 죽으셨지만, 그 효력은 온 인류에게 오늘도 해당된다.

오늘 고백하자. “나는 내 고통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의 질병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확신은 의심이 없는 상태이다. 온전한 믿음의 상태이다. 믿음의 실체가 확신이다.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며, 이것이 믿음이다.